

# “뭇생명에 자비를”

# 救世-救難의 상징

## 육환장



◇ 연화좌대 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광배가 움직이게 조각된 육환장.



◇ 고려불화의 지장보살도에 나타난 육환장. 일본 덕천 미술관 소장.



◇ 연꽃모양과 관세음보살의 익명. 여의보주 등이 조각된 육환장.



◇ 쌍용과 오펀타피, 연꽃모양이 중심을 이룬 육환장.

깊은 빗이 든 황과 왕비의 악을 구하려 서한 서역국으로 가는 비리공주. 공주는 아이타 부처님으로부터 황금지팡이 하나를 받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가니 힘로는 탄탄대로가 되고 언덕은 경지가 되고, 바다는 뭇이 되었다. 갈물위로 던져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 건너기도 했다. 비리공주의 효성에 감동한 아이타부처님이 준 선물 황금지팡이는 바로 인간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걷어내는 신통력의 상징이었다.

“비리공주 신화”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많은 전설과 설화에는 지팡이가 등장하고 그때마다 지팡이는 구세(救世)와 구난(救難)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스님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라 문무왕때 경흥법사를 병마로부터 구해준 비구니 스님은 지팡이 하나를 새로 조성한 불화 십일면연통상(十一面圓通像) 앞에 두고 기도했다. 이후에도 경흥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비구니스님으로부터 여러번 계우침을 받는데 그 비구니스님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현이었다.

나라 조형물로 조성되는 지장보살은 긴 육환장을 소지한 것으로 표현된다. 이 역시 지옥중생 모두의 성불을 염원하는 지장보살의 대자비심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요즘 육환장은 그 형태에서나 쓰임새 면에서 본래의 뜻을 많이 잃어 버렸다. 자동차가 이동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키보다 큰 육환장을 들고 다니기에 번거로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육환장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걸음을 걸을때 몸을 의지 한다는 육환장의 일차적 기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벼워야 한다. 긴 막대와 머리부분의 장엄물을 합해서 들고 다니기에 적당한 무게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후대의 간권성과 가벼움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 길이가 짧아지고 장엄물이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작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이는 지팡이 수준으로 전

육도유회 뜻하는 여섯거리  
걸음 옮길때마다 짚랑소리  
벌레들 몸을 피하게 해  
수행경지 나타내는 성물

### 학림스님 108개 만들어 보급

락해 버린 육환장에 대한 현실적 변명일 뿐이다. 고려불화 속에 나타나는 육환장을 기본틀로 무

게가 가볍고 장엄물이 웅장한 육환장 108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작년 불교미술전람회에 33개의 주장자 세트를 출품해 입선했던 학림스님(예천 법화암주지)이 3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실로 육환장 108개를 완성하기에 이른 것. 학림스님이 고려불화집에 나타나는 지장보살도의 육환장을 모본으로 시작한 육환장 제작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역시 불교의 가르침을 폭넓게 담으면서 장엄미를 살려 내는 것이었다. 청동이나 황동 주물로 장엄물을 만들 경우 소지하는 노스님들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스님은 방학기법으로 황동 장엄물을 만드는데 착안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오펀타피, 용, 연꽃문양 등의 조형물을 방학기법으로 만들어 내고 주변의 테두리도 속이 빈 황동판을 사용해 장엄물의 무게를 1kg 이내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 스님은 장엄물에 불교의 가르침을 담아내는데 몰두했다. 육도 유회를 뜻하는 여섯개의 고리는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해와달, 부처님과 광배, 오펀타피, 연꽃모양, 사성제 팔정도 등 상징하는 테두리의 마디, 관음보살의 상징인 악병 등을 응용해 4가지 모델의 장엄물을 만드는데 고작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장엄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좋은 나무를 고르는 것과 나무를 건조시키는 일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소백산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니머 모양이 아름답고 단단한 나무를 채취했다. 물론 살아 있는 나무를 통째로 베기보다는 잘라지나고 사지전전의 나무를 선택했다.

채취된 나무는 일단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으로 쪼고 1년 이상을 건조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무게가 최대한 가벼워 지도록 하기 위해 물에 푼 담겨주는 비법도 알게 됐다. 굳게 쪼인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다시 1년여 동안을 건조시켜 두들리거나 굵이 가지 않은 나무를 업선해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양을 살리며 사포질과 생동칠을 일곱번이나 반복해 완성품을 만들게 됐다.

“일반적인 지팡이와는 달리 육환장은 불교적인 의미가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성물입니다. 요즘 주장자의 장엄물이 외국에서 수입될 정도로 국내에서는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불교의 전통을 살리자는 뜻에서 육환장 제작을 시작했는데 3년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여러 가지의 비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육환장이 법의 상징이란 점에서 너무 남용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라 판단되어 108개만 제작해 보급하고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육환장을 법계를 베푸는 기둥이라 표현하는 학림스님은 서울힐브사 조실 석주스님을 원로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육환장의 형태와 크기 등에 대해 조언을 들으며 보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 취재수첩 육환장-외출용, 주장자-설법용

육환장과 주장자는 어떻게 다른가. 크게 석장(錫杖)이란 의미에 포함되는 지팡이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육환장은 외출용으로 주장자는 실내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육환장은 길을 걸을때 몸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주장자는 법상에 올라 법을 설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요즘도 큰스님들이 상담방이나 일반 법회에서 설법을 할 때 주장자를 종종 치거나 높이 들어 보이는 등 법을 전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가(禪家)에서는 계침을 숙려하기 위해 주장자로 제자를 때리기도 하고 말없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역시 계침의 경지를 일깨우는 말없는 경지(言語道斷)의 표시다.

육환장과 주장자를 포함하는 의미의 이름이 석장인데 석장이란 말은 발이 깨카리(khakkhara)를 극기라(踰羼羅)로 음역하고 유상장(有聲杖) 성장(聲杖) 명장(鳴杖) 지장(智杖) 덕장(德杖) 등으로 번역하면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소리가 나는 지팡이, 스스로 울리는 지팡이, 지혜와 덕의 지팡이 등 해석 그 자체가 육환장의 뜻을 전하고 있다. 육환장은 비구가 필수적으로 지니는 18물(物)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 육환장과 주장자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학림스님.



◇ 하동 쌍계사 팔상불회도(八相佛會圖) '북원전법상(부분)' 1728년.

## 동서양 모두 어진 동물로

###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18 사슴

심장생 중의 하나인 사슴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어질고 거룩하며 영성력을 갖고 있는 동물로 숭상되고 있다.

부처님 전생이야기에 사슴의 왕으로 태어난 보살이 새끼를 가진 암사슴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모든 동물을 구한 이야기가 있다. 또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첫 설법을 한 곳이 '녹야원(鹿野苑)'이다.

성현의 (용재총화)를 보면 고려 환암국사가 13살때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갔다가 달아나던 어머니사슴이 새끼사슴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쳐 스님이 된 이야기가 나온다.

중세 기독교 교회 미술에서 사슴은 흔히 세례받는 물가에 등장한다. 사슴이 뱀을 물리치거나 해를 입지 않고 사악한 뱀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사슴을 그리스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때 산타크로스 의 뿔뿔을 끌어주는 사슴 '루돌프'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장 유명한 사슴이다.



◇ 렘브란트의 회화. '성(聖) 질과 암사슴' 1500년경. 영국 런던 국립박물관.